

강원불교 '새 활력 넣기' 다짐 원주사암련·제4교구신도회 새 회장 취임

도심포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 강원 영서지역 사암연합회장과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가 새로운 체제를 갖춰 지역 불교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8월 21일 원주지역 사암연합회장 직전 스님이 새로이 취임한데 이어, 9월 12일에는 오상주 원주 국형사 신도회장이 조계종 제4교구 신인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오상주 신인신도회장은 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불교신도단체의 조직화에 힘써 이를 바탕

으로 불교 사회복지 활동, 문화예술의 창달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21일 제1군사령부 법당 법웅사에서 열린 원주불교사암연합회 제14대 회장 취임식에는 치악산 구룡사 주지 직전 스님이 원주지역 사암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화합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를 최우선으로 도심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장사상륙작전 용사 위령재 봉행 영덕불교사암련, 학도 호국영령 천도 나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사상륙작전의 전몰 용사 합동위령재가 봉행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범성)는 9월 14일 영덕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인근 장사전몰장병 위령탑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학도 호국영령들의 천도를 위한 전몰장병 위령재를 열었다.

행사에는 영덕불교사암연합회 대종들과 김병목 영덕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파파하 주한 태국대사관 국방무관, 대한민국육군탄용사 호국선양회 허병환 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근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령재가 봉

행된 전몰장병위령탑이 1991년 서경보 스님과 스님의 제자 석일산 스님이 뜻을 함께 하는 대중들과 함께 2000여 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건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올해부터 전몰장병 위령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또, 영덕군은 240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사해수욕장 일대를 장사상륙작전 승전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장사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으로 군번도 없던 772명의 무명용사가 참전해 산화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원주에 판화 특성화학교 생긴다 원주 고판화박물관과 황둔초교 상호협력 협정

학생 특성화교육을 위해 지역 박물관과 지역학교가 손을 잡았다.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화)은 9월 9일 황둔초교(교장 김래욱)와 판화 특성화학교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협정 조인식을 개최했다.

판화특성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학교연계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고판화박물관이 선정됐다.

이번 상호협력협정 체결로 국내 유일의 판화박물관인 고판화박물관

은 황둔초교에 특화된 박물관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한선화 관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금년에만 전통판화교실을 여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황둔초교를 거치는 모든 학생들이 팔만대장경의 통판화를 익혀서 인쇄술에 대한 긍지와 생활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부인사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국중세사학회 · 대구 부인사 학술발표회서 주장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1일 대구 부인사에서 열린 학술발표회 모습.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앞두고 봉안처였던 대구 부인사에 대한 조사·복원과 함께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중세사학회(회장 박종기)와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는 9월 11일 부인사 삼광루에서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는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에는 최정환·남권희·한기문 경북대 교수, 최연주 동의대 교수, 윤용혁 공주대 교수,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했다.

행사에서 최정환·최태선 교수 등은 "초조대장경이 조성된 부인사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경관도 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재발굴해 경관각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대구지역 불교

계에서도 행정당국이 초조대장경의 수급과 복원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벤트성으로 1000년 맞아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부인사와 초조대장경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관련 문화재를 찾는 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권희 교수는 "초조대장경은 국가의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성 흥왕사에서 대구 부인사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

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연주 교수는 "부인사에서 고려 대장경을 조성한 것은 고려가 불교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부인사가 한국불교 역사를 계승하는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역을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초코파이 스님'의 군포교 원력

고봉 스님, 선농일치 당조고추 재배 수익금 군포교 지원

남다른 열정으로 군포교에 앞장 서고 있는 70대 노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초코파이 스님'으로 불리는 군위 정토원 고봉 스님(사진)이 군장병들과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다.

스님은 2001년 2군사령부 호국무열사 법당을 시작으로, 2002년 제201특공대 호국무학사 법당을 매주 토요일 찾아 법문을 하고 장병들을 위해 초코파이 빵 김밥 국수 과일 등을 지원해 왔다.

고봉 스님이 '초코파이 스님'이라 불린 것은 이때부터.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열정은 그치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제50사단 훈련병들과 장병들을 위해 매주 100여 박스의 초코파이와 김밥 떡 국수 등을 지원했다. 고봉 스님의 봉사활동에 따르는 장병들도 많아졌고, 스님은 현재 제50사단 불교위원으로서 매 주 제50사단 예배부대 등에서 종교 안보 강연도 하고 있다.



고봉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원력은 2001년 설악산 봉정암에 기도를 갖다가 시작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군법사를 만난 스님은 군포교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소상히 알게 됐다. 스님은 군장병들이 막연히 믿어 왔던 불교를 체계화시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아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 제대 후에도 올바른 신행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

는 것이 초코파이 고봉 스님만의 포교 비법이다.

스님의 또 다른 장기는 당조고추 재배다. 고령의 스님은 심신의 고단함도 잊은채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당노 등에 좋다는 당조고추를 직접 재배하는 스님은 수확한 고추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판매도 해 판매이익금을 군포교에 사용해 왔다.

당조고추 뿐만이 아니다. 고봉 스님은 1만여 평의 논밭에 고사리 도라지 고구마 사과 배추 버섯농사를 짓고 있다.

주위에서는 스님에게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고봉 스님은 "자연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며 "10월부터 수확할 배추 고구마 사과 등을 많은 불자님과 장병들에게 보급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30일간 산사서 수행자 되니...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23일 입학식

불교계에 새로운 출가문화를 정착시키려나가고 있는 단기출가행자 입학식이 9월 23일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다.

단기출가행자는 종래의 사찰수련회와 달리 삭발염의하고(남성은 의무, 여성은 희망자에 한함)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인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5년 여 동안 21기생까지 배출했고, 이번이 제 22기 입학생이 된다.

8월 남자 50명, 여자 40명의 제 22기 1차합격자를 발표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이번 입학식 당일 면접을 통해 합격한 단기출가 행자들에게

한해 10월 22일까지 30일간 수행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한편,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 생활과 동일하다. 그만큼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입학 서류심사에서 40세 이상은 정원의 약 30% 이내만 선발하고 있다.

또, 단기출가 졸업 후 정식 출가회 방자를 우선 선발하며, 수행 후 본인 이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로서 등 록할 수도 있다. 또 졸업생들 중 요 청이 있을 시 입학 정원의 5%내에서 제출기를 받는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오백나한 백일기도 입재해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개금불사도 회향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는 9월 13일 '국가 안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500나한 100일기도 입재식'과 대웅보전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백일기도 입재와 대웅보전에 모신 연등불·석가모니불·미륵불과 4대보살인 관세음·문수·보현·대세지보살의 개금불사 회향을 했다.

원료 스님은 "중국의 500나한



9월 13일 청도 운문사에서 봉행된 500나한 100일기도 입재식.

신앙에는 한국 분도 한 분 있다"면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정진을 잘하면 500나한에 들 수도,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인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료 스님은 오랜 유학 끝에 귀국해 현재 운문사 강사로 있으며 학인들의 영여 교육을 맡고 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월정사불교대 연합체육대회 개최

월정사불교대학(학장 정념)·월정사 주지는 9월 1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종합운동장에서 제5회 제4교구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월정사불교대학을 비롯해 원주·강릉·동해불교대학이 참여한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500여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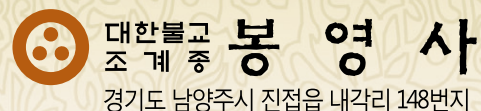
정념 스님은 "익히고 수행하는 불교, 봉사하고 실천하는 불교로의 발

전은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한다"며 "이번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불교대학간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동해불교대학이 우수, 원주불교대학이 준우승을 했다.

한편, 내년 제4교구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개최지로는 동해불교대학으로 결정됐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봉영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거리 148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대종사 초청

보살계 수계법회 및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대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대종사와 계단위원 무관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함과 동시에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함으로써 佛보살의 계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지어온 업장을 소멸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부처님 전에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천년의 감로수가 흐르는 봉영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발원합니다.

■ 증명 법사: 지관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수계 법사: 무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천년고찰 천점산 봉영사

회주 설산 철안
주지 혜만 합장

* 환경보호를 위해 화환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 일시 장소: 불기 2553(2009)년 9월 26일(토요일) 오전 10시 / 봉영사 금강계단 ■ 문의 전화: 031 - 571 - 0555